

5. 제5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회의 및 시애틀지역 세미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오영)는 2003년 3월 28-30일 시애틀 Red Lion Hotel에서 제5차 임원·이사·중앙상임위원 합동 연석회의와 시애틀 지역 세미나가 김재국 총영사, 이도영 초대 회장을 비롯 140여명의 총연 간부들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중 고문·자문위원 및 임원·이사·중앙상임위원 70여명 이외에 워싱턴 DC 최병근 회장 후보 예정자가 별도 50여명을 동원, 기자회견 및 단합대회를 하여, 회의 및 만찬 분위기가 술렁거리기도 했으나, 비교적 원만히 정해진 일정대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집행부가 준비한 일정 중 민감하지 않고 다수의견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연석회의에서 토의하여, 제4차 뉴욕 회의록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지성명서 채택, 회관건립기금 구좌 단일화, 20대 회

장 후보 등록금 2만불 책정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인회 100년 및 총연 25년 사 편찬, 한미 안보 동맹 50주년 기념 행사, 워싱턴 구공관 구입, 재외 동포법 개정 등에 관해 경과 보고를 하였으며, 이오영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민감하고, 추후 잡음을 없애기 위해 연석회의에서 인준을 피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 제15조 및 제28조 3항에 의거, 이오영 회장은 별도로 상임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회장단, 이사장단,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합동회의(회칙 제28조 2항)에서 하기로 선언하고, 합동회의 재적위원 40명 중 참석 인원을 확인한 결과, 20명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에 김기홍 전 총연 이사장을 추천(회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준 동의를 요청한 결과 15명의 찬성으로 서면 위임 18명을 합할 경우, 33명의 찬성으로 인준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하였다.



세미나 회의 모습

선관위원 구성은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함이 통례이나, 이오영 회장은 훗날 잡음을 없애기 위해 회칙 제15조와 37조에 규정한 대로 Fax로 해당자들에게 위원에 대한 인준을 이오영 회장에게 일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오영 회장은 Fax 승인을 받는대로 지역 안배, 특정 후보 예정자 참모 배제, 선거 업무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4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 날 3월 29일 오전 지역 세미나에서는 임용근 전 주 상원의원의 "북미 관계 조명과 교포의 자세", 하만경 박사의 "북한 핵무기 정책", 박영민 Federalway City 시장의 "미 주류 사회 접근 방안과 총연의 역할", 장태수 Shoreline 시의원의 "우리의 내일"이란 연제로 주옥 같은 내용이 발표되

었다.

연사 모두와 이 날 행사를 위해 수고한 김병직 서북미 연합회장, 홍승주 시애틀 한인회장, 그리고 김재국 시애틀 총영사 등 7명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신호범 주 상원의원 부의장께서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28일 저녁 환영만찬을, 김재국 총영사는 29일 저녁 만찬에 Host가 되었으며, 28일 환영 만찬에서 시애틀 음악인 동우회 회원들이 4중창을 앵콜 송까지 연속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5차 회의 후 전체 사진촬영